

명품 경북교육

2013 봄 Vol. 82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너의
꿈을
위한
나의
노래

애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들의 몸의 성장
마음의 성장이
선생님에겐 가장 큰 기쁨인 거?

애들아,
너희들의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선생님에겐 가장 큰 아픔인 거?

애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던 날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흘리던
벅찬 감격의 눈물을?

애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잘못을 저지른
너희들을 꾸짖은 날이면
긴 밤을 지새워
가슴을 치고 또 치며
선생님의 무능을 꾸짖는 거?

애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너희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선생님에겐 가장 큰 보람인 거?

애들아,
밤마다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아니?
그건 너희들이 아름다운 꿈을
활짝 꽃피우게 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랑의 노래란다.



CONTENTS



04 교육감메시지



06 경북교육 뉴스

본청 및 직속기관 / 공공 도서관 소식 / 학교 소식

20 경북교육을 빛낸 별



22 사제동행

애들아! 사랑한 day~ / 선생님! 당신이 있어 행복해 you~

24 사진으로 통하는 교육



26 학생기자단 발굴 보도 뉴스

27 행복한 교실 이야기

28 아름다운 이야기



30 함께하는 경북교육

학교운영위원회 / 녹색어머니회

www.gbe.kr



표지이야기

2013년 3월 1일 개원한
 경산 「꽃재유치원」 어린이들의
 행복한 봄 이야기

**제83호 경북교육 소식지 원고를
 모집합니다!**

기관별 우수사례 학교소식 미담사례
 교직원 및 학부모의 글·그림·사진 등

보낼 곳: khg2661@hanmail.net
 T. 053-603-3292
 F. 053-603-3296

발행일 2013년 3월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총괄 김용수 공보담당관, 김호국 공보홍보담당(사무관)

편집위원 김현광(공보담당관 장학사)

최중철(부향초 교사), 김윤지(삼성현중 교사)

한지영(북삼초 보건교사), 정지수(화양초 유치원 교사)

홍경애(경북학생문화회관 사서)



창의성 발휘로 새로운 교육바람을 일으키자

사랑하는 3만 경북교육가족 여러분!

희망의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직에의 부푼 꿈을 안고 새로이 희망 전보 임용되신 3,144명의 교원 및 전문직 모두가 임지의 환경에 잘 적응하여 명품 경북교육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며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혹은 전임자의 하던 일을 따라하지만 말고, 비판 정신으로 업무 추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육의 변화를 선도해 나갑시다.

업무의 창의성은 항상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 발휘됩니다.

일본의 한 남자가 일본식 파전 가게를 열고 열흘이 지났지만 손님이 없어 고민하다가 자전거에 파전 배달통을 싣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가게가 잘 되는 줄 여기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가게는 종업원 600명을 둔 기업형 음식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궁리 끝에 얻어낸 홍보 전략이 손님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아 무상교육,
중학교 체육 수업 시수 강화, 수준별 수능 실시 등
변화하는 시책이 교육가족들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끈기 있게 매달려
성과를 내겠다는 자세로
좋은 출발을 해주기 바랍니다.

2013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3. 3. 4.

경상북도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제15대 경상북도 이영우교육감이 임기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공약과제가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과제 6대 분야 30개 과제 중 작년 말 기준 대비 22개 과제는 완료되고, 8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다.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및 지역학생야영장 현대화, 학력 우수학교 및 학력 향상학교 집중 지원, 영어 교육 질 제고로 글로벌 인재 육성, EBS 및 IPTV 전 학교 확대 지원, 등하교 안전을 위한 안심 알리미 서비스 실시 등 22개 과제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총 소요액 1조 3,985억원 대비 53.3%인 7,468억원을 공약사업에 투자했다.

한편, 학력 책임제에 의한 학습 부진아 없는 학교 만들기, 시군과 함께 하는 친환경 급식 학교 확대, 유아·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꼽을 수 있다.



■ 희망, 만족, 보람, 감동주는 교육서비스 「성공적 추진」

- ▶ 학생 해양수련원 건립 및 지역 학생야영장 현대화 추진
- ▶ 학생 야영·수련활동 내실화를 목표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2012년 10월에 개원했고, 청도학 생야영장을 2011년 10월에, 안동학생야영장을 2012년 10월에 각각 현대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2015년을 목표로 상주학생야영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 학력 우수학교 및 학력 향상 학교 집중 지원을 통해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과목별 향상도 우수학교 31곳으로 전국 1위 달성
- ▶ 영어 교육 질 제고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전문강사를 95% 이상 배치하였으며, 특히 정부 초청 영어 봉사장학생(Talk)은 전국에서 최다 배치
- ▶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 배움터 지킴이 배치 및 CCTV 설치를 100% 완료
- ▶ 돌봄 유치원 수를 16배, 초등 돌봄 교육서비스를 2배로 확대하고, 사이버 가정 학습 전학생 무료 수강 지원, EBS 및 IPTV 전 학교 확대 지원을 통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 ▶ 초·중학생의 무상 급식을 올해 읍지역까지 50% 확대 실시
- ▶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반학교의 특수학교 설치 비율을 25%에서 28%로 높임

이러한 공약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으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2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으며, 감사원 평가 최우수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한편, 이영우 교육감의 공약 이행 상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 교육감실에 공개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공약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앞으로 도민과 약속한 공약 추진 사항을 공개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인재 육성 토크 콘서트 개최 -경북교육감, 「Talk 콘서트」로 현장과 소통하다-

경상북도교육청은 3월 8일에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감 1,0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업 문화 창조를 위한 선포식과 최초 Talk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교육감과 현장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날 선포식과 Talk 콘서트는 미래 교육환경에 맞추어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문화를 창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하여 사고, 발표, 체험 활동을 활성화 하고, 강의, 교과서, 판서 활동을 줄이는 3Up& Down 운동을 적극 실천하며

둘째, 토론회 수업 문화 확산으로 입담, 재담, 정담의 어울림 3담꾼을 육성하고

셋째, 현장 맞춤형 수업 컨설팅과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며

넷째, 일상 수업공개, 수업 개선 동아리 및 교과연구회 참여 등의 실천적 공감대 형성으로 수업 문화를 바꾸어 나기는데 있다.



가자! 행복한 토요일 학교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새 학기 개학 후 첫 토요일인 3월 9일부터 관내 948개 초·중·고등학교 중 943개 학교에서 토요일과 후학교와 토요일스포츠데이 등 9,094개 프로그램에 154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39.3%의 참여율과 87.6%의 만족도에 이어 2013년에도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40%의 참여율과 90%의 만족도를 목표로 하는 주5일수업제 토요일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프로그램 개설을 준비하였으며, 2월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DID 시스템을 통한 독도♥사랑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홍보 방송 시스템(DID 시스템)을 이용한 독도 교육 활동을 강화하였다.

직속기관과 울릉공공도서관 등 30여 곳에 설치한

DID시스템을 통해 우리 땅 독도의 자연환경과 독도 가는 길, 자원보고 독도 등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영우교육감은 “독도는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 영토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독도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시스템: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진, 자막 등을 시스템이 연결된 기관에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 시스템을 말함.

전국 최고! 경북 마이스터고를 아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자력발전설비분야 마이스터고인 평해공업고등학교와 철강분야 마이스터고인 포철공업고등학교의 개교식을 3월 4일에 가졌다. 이 두 학교는 2011년 11월 23일에 제5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1년 동안 교육과정개발, 첨단시설 구축 등 활발한 개교준비를 하였다. 금오공업고등학교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 이어 2개교가 추가 개교함으로써 전국 35개 마이스터고 중 경북에는 4개교가 소재하게 되며 전국최다보유 교육청으로 우뚝 섰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각종 시설 및 교원 배치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은 입학시 협약기업에 100% 취업이 결정된 상태로 취업에 필요한 각종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 준비 완료 !



경상북도교육청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2012. 7. 10자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확보, 교사 연수, 누리과정 운영 자료보급 등의 준비를 모두마쳤다.

- ♣ 누리과정 교육비: 3~5세아 전원 지원 1,021억원 확보 완료
- ♣ 누리과정 연수: 2,439명 이수 완료
- ♣ 누리과정 자료 보급: 698개 전 유치원 100% 보급 완료



학교 홈페이지가 내 손 안으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원장 조춘식)은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과 학교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3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학교 현장의 교육내용을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을 구성하였고, 모바일 통합 뷰어 솔루션을 도입하여 첨부물을 별도의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PC에서와 동일하게 학교 홈페이지의 전 영역을 모바일 기기 화면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며, 서비스 학교 수는 전국 최다이다.

나는 독서왕이 될테야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이승태)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한 '2013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선정되었다.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를 직접 찾아가 독서활동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인 독서기반을 제공하고 도서와 문화상품권을 지원받아 어린이 개인에게 선물하여 내 책이 생기는 즐거움과 함께 독서록 작성을 통해 2013년 독서왕을 선발할 계획이다.



함께 해요~ 학교폭력 로그아웃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규호)은 지역 단체(경찰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신학기를 맞아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선생님, 경찰관, 지역주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둘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 서명도 받았다.

위기학생! 우리가 지킨다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환)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는 위기학생 상담지원을 위한 연계기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인 대학생을 활용하여 위기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산교육지원청은 영남대학교 심리학과로부터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대학생 멘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45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쾌거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관장 김미경)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도서관상 시상에서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1969년에 제정되어 전국의 공공·대학·전문도서관 등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시상하는 도서관 분야 최고의 상이다.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개설·운영하였고, 학교도서관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독서생활화에 크게 기여한 데 따른 것이다.

1315 이야기 나라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관장 김후성)에서는 매주 토요일 유아·어린이에게 책 읽어주는 1315 이야기 나라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이 그림책과 동화책 두~세권을 읽어주는 독서행사다.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2년 책 읽어주는 청소년 양성과정 수료 후 동아리를 결성하여 노인병원과 어린이집에서 책 읽기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3년부터는 도서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아기와 함께하는 행복한 책놀이~

경상북도립의성공공도서관(관장 김순연)은 지역 영·유아들에게 책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기들의 지적 성장과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아기와 부모가 함께 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놀이터, 도서관과 거리가 멀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촌 지역 영아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북스타트데이, 지역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북스타트데이 등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확대·전개할 예정이다.

공립 단설 꽃재유치원을 소개합니다

경산 꽃재유치원(원장 장명희)이 2013년 3월 1일에 개원하였다. 어짐(인)·옴(의)·바름(예)·아름(지)·믿음(신)·밝음(명) 실천을 원훈으로 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승격한 공립 단설 꽃재유치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경산꽃재 예의 뜰가꾸기」, 「매일매일 책읽기 매일매일 생각키우기」, 「녹색체험활동을 통한 환경사랑 마음 기르기」 등 유아들의 인성과 창의적인 사고를 성장시키는 전국 최고의 명품유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콩깍지 속 열두 아띠들의 사랑 나눔 이야기

청통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해경 교사는 『자연을 닮은 콩깍지 속 열두 아띠들의 사랑 나눔 이야기』라는 주제로 2012년 바른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 전국대회에서 1등급을 받았다. 김 교사는 12명의 아이들이 콩깍지 속 콩알처럼 알콩달콩 함께 어울려 신나게 놀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사랑을 서로 나누며, 모든 생명체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여 배려와 나눔의 마음을 나누고 밝고 푸르게 서로를 사랑하며 쑥쑥 자라나는 아띠들이 되도록 열정을 쏟았다.

온새미로 힐링! 신(伸)명나는 아이세상 만들기

복삼초등학교병설유치원오평분교장 이해숙 교사는 ‘온새미로 힐링, 온새미로 힐링! 신(伸)명나는 아이세상 만들기’ 주제로 2012년 바른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 전국대회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교사는 4명의 원아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몸·마음·영혼의 건강을 온새미로 안에서 느끼고! 당당이, 조절이, 나눔이, 더불어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아이 본연의 모습인 신(伸)명나는 아이(자신감, 자기조절, 협력, 배려와 나눔)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도심 속 분교의 특색을 살리고 유아들의 수준에 적합한 체험중심활동을 선정하여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천하였다.



제94주년 나라사랑! 독립만세운동

방지초등학교 문명분교(교장 정호철)에서는 3월 18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제94주년 나라사랑! 운문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가졌다. 학생들로 하여금 3.1정신을 계승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 주간을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2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은 특히 청도 3정신(화랑정신, 3.1정신, 새마을정신) 계승 관련 훈화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졌다.



뇌체조(Mental Activity)로 행복한 학교

동천초등학교(교장 권귀연)는 경북뇌교육협회와 함께 폭력 없는 학교, 뇌를 잘 쓰는 학교, 서로 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해피스쿨 캠페인」협약식을 가졌다. 뇌체조 활동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학습 활동을 도우며, 뇌체조의 반복된 동작이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왕따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구야, ‘밥상머리교육’ 가자!

성주중앙초등학교(교장 권재경)는 3월 한 달간 교내 급식소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매주 수요일 교장선생님과 학생 5명이 번갈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 년에 한번 이상은 교장선생님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절·경제·건강·공동체·환경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책꾸러미로 독서왕 될래요

자천초등학교(교장 강진철)에서 2013학년도 자천초등학교 식구가 되는 9명의 새내기들에게 특별한 입학 선물을 준비하였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 중 아동들의 읽기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8권을 엄선하여 ‘책꾸러미’에 담았다. 엄선된 8권의 책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쁜 가방에 담겨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동생들이 되라는 염원을 담아 입학식 마지막에 6학년 언니들의 손에서 1학년 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학교에 의형제가 있어 든든해요

학림초등학교(교장 류정현)에서는 3월 18일 중간놀이 시간에 종합실에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2013학년도 전교생 의형제 결연식'을 열었다. 이날 결연식을 통해 맺어진 총 34쌍(1·6학년, 2·4학년, 3·5학년)의 의형제는 앞으로 의형제와 함께하는 점심식사, 의형제 책 읽어주기, 의형제 멘토링, 의형제 사랑캠프, 사랑의 편지쓰기 등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형제로서의 사랑과 우애를 나눌 계획이다.

「SESE」녹색 동아리, 숨은 자원 모으기

법전중앙초등학교(교장 박영수)는 봉화군에서 실시하는 2013년 '새마을 대청소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SESE(SESE : Save Energy Save Earth)' 녹색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 동안 전 학생들과 전 교직원들이 함께 실시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자며 녹색교육 활동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 쏙쏙! 생각 쏙쏙! 「SOC SOC 캠프」

풍천초등학교(교장 권오룡)는 2박 3일(2013.1.26.~1.28)동안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지식수준, 이해 정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겨울『SOC, SOC 캠프-Story Of Creativity』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울산대학교 창작기획동아리 유앤어스(You&Us)의 정솔지와 14명이 교육재능기부의 일환으로 풍천초등학교에 찾아와 학생들과 함께 어울렸다. '특명 계란 구조대' '몸으로 말해요', '칭찬릴레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와 나의 티셔츠' 등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리틀소리풍경, 첫 연주 시작했어요

상영초등학교(교장 박정우) 리틀소리풍경 동아리는 상주교육지원청에서 6학년 김민서 외 4명의 학생이 이번 학기 첫 번째로 색소폰 연주를 하였다. 연주를 한 동아리는 삼성꿈장학재단의 예산지원으로 상주 아동복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악기 동아리로서 양악과 국악기 1가지 이상씩 다뤄 재능 발굴을 도와 음악교과 학습에 도움을 제공하여 학교생활의 유연성과 학습 기회 제공을 돕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배려와 이타심을 배우고 있다.





덩더콩 로봇들의 신나는 공연 한마당

예천남부초등학교(교장 한종근)는 3월 15일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궁중연례재현 로봇공연 '덩더콩 로봇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첨단 기술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종묘제례악, 포구락, 부채춤, 사자춤, 태권무 등을 시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공연의 진행과 해설을 맡은 몽금이가 나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맛깔나게 진행을 하여 학생들이 공연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

학급 헌법 만들기

죽변초등학교(교장 김진문)는 3월 15일에 2013학년도 '학급헌법과 학교폭력예방 선서식'을 가졌다. '학급헌법 만들기'는 학급 내 구성원들 간 서로 지켜야 할 원칙과 약속을 헌법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공동체의 소중함과 법에 대한 학생들의 친근성을 높이고,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기획한 행사이다. 학급 공동체 구성원들 간 서로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욕체험으로 인성·사랑을 키웠어요

상운초등학교(교장 강희태)는 3월 13일 전교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 밀어주며 인성·사랑 기르기」시간을 안동 학가산 온천에서 실시하였다. 평소 목욕체험을 자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청결교육을, 친구 사이에는 등을 밀어주며 서로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인성교육을, 사제시간에는 학기 초 신뢰를 키울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책으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여 실천하면서 배우는 창의·인성교육을 계속 해서 실천할 것이다.

내 안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

안동초등학교(교장 이준승)는 3월 14일에 재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Wee센터 상담주간을 운영하였다. 이번 상담주간 운영은 안동교육지원청 Wee센터 주관으로 '내 안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라는 주제 하에 학교폭력 OX퀴즈, 회복 탄력성 검사, 희망 나무 만들기 등 세 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 날 Wee센터에서는 김진선 실장님을 비롯하여 임상심리사 및 전문상담사가 내교하여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지도 조언을 해주었다.





교육 가족의 행복한 동행

상주중학교(교장 정재기)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1월 19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 40여명이 모여 실시한 이번 연탄배달 봉사활동에서는 상주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개운동의 두 가구에 연탄 1,000장을 배달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국악이 흐르는 졸업식

봉화중학교(교장 이세호)는 2월 8일 국악이 흐르는 색다른 졸업식을 가졌다. 5인조 국악양상블 '꽃비'가 축연무, 축원(권학), 치유(인연), 소통(친구), 출발(희망)의 의미가 담긴 스토리텔링 기법의 무대 공연을 펼치고, '희망을 펼쳐라'란 주제로 졸업생과 재학생이 '종이 비행기'를 서로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졸업생들의 교복물려주기 행사도 함께 여는 등 졸업생 모두가 주인공이 된 의미 있는 졸업식을 가졌다.



한복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졸업식

부계중학교(교장 조건호)는 2월 14일 제60회 졸업식을 맞이하여 모든 졸업생과 교원들이 한복을 입고 삼가는 마음가짐으로 감동과 사랑이 있는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생은 도포와 갓을 차려 입은 학교장으로 부터 졸업장과 구명떡(옛날 서당에서 책걸이 행사 때 함께 나눠 먹은 떡)을 받고, 모든 졸업생이 단체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모교여, 안녕! 마지막 졸업식

부남중학교(교장 오인규)는 2월 15일 제41회 마지막 졸업식을 가졌다. 1970년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제41회 총 2,2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번 졸업식에는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부모 학생 및 지역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교장 선생님과 참석자들은 졸업생의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재학생의 새로운 통합학교로의 전학을 축하해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었다.

세계무대 금빛 도전장

이동중학교(교장 김유곤)는 2월 23일 한국학교발명협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주최한 '2013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겸 제1회 아시아창의력올림피아드에 학교 소속 과학동아리인 '웨이브(WAVE)' 팀과 '터틀(TURTLE)' 팀이 'T셔츠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여주세요' 라는 도전과제 D부문에 각각 동시 출전해 금상(1위)과 은상(2위)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오는 5월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 한국대표로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다.



천안함으로 나라사랑 실천

경안여자중학교(교장 김두진)는 3월 21일 나라사랑 실천 교육의 일환으로 정하동 충혼탑을 참배하고, 안동보훈지청과 협력한 천안함 추모 3주기 동영상을 시청하여 학생들에게 투철한 안보관을 심어 주었다. 또한 문예행사를 통하여 나라사랑 체험활동 시간을 가지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하였다.



2012 전원학교평가 전국 최우수교

청하중학교(교장 박창원)가 2012년 전원학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교로 선정됐다.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농어촌전원학교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전원학교, 명품 SMART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력신장을 위해 야간심화보충학습을 운영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1인 1악기 지도와 함께 테마형 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학생수가 41.3%(2009년: 126명, 2012년: 178명)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독립 만세! 독도독립 만세!

명인정보고등학교(교장 배재천) 독도동아리 '가슴속독도' 학생들은 3.1절을 맞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성주군청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독도사진 전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따라 부르기,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서명 운동, 컴퓨터와 핸드폰 배경화면에 독도사진 넣기 운동 등을 진행하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학생오케스트라, 청와대 행사에 초대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교장 하애덕) '학생오케스트라'는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관계자 격려 오찬'에 초대되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감성적 교육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1학생 1악기 익히기 과정을 통해 개인의 소질 계발과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2002년 창단되었다.



지역의 인재, 지역민이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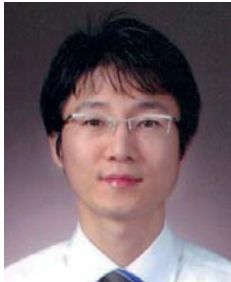
동명중·고등학교(교장 이진관)는 1월 29일 동명면사무소 앞 마당에서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함께 고려대학교 국제 어문 학부에 입학한 박정효 학생을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박정효 학생은 선천성 당뇨와 지병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아버지, 공장에서 큰 사고를 당한 어머니, 누이동생 두 명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학교와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드림캠프 “네 꿈에 미쳐라!”

약목고등학교(교장 손중달)는 1월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신입생 30명, 1학년 35명, 2학년 35명 총 100명과 서울대학교 멘토링 봉사단체 드림 컨설턴트 학생 22명이 “네 꿈에 미쳐라!”라는 주제로 ‘2013 드림캠프’를 개최하였다. 꿈 찾기 프로그램, 직업 박람회, 1대1 멘토링, 연극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울대생의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은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4회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전국 1등급 5명중 5명(100%) 입상



심규영(김천부곡초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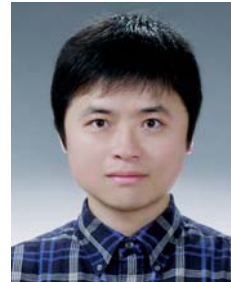
박미영(포항유강초 교사)



전인순(왜관중앙초교 교사)



한숙자(영천금호초 교사)



이재현(영천 청통중 교사)



경상북도교육청은 제14회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전국 입상자 전국 1등급 5명중 5명(100%), 2등급 10명중 5명(50%), 3등급 13명중 8명(61.5%)이 입상하여 전체 28명중 18명(64.2%)이 입상해 지난 2000년부터 12년 연속 본 대회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성격상 이론 연구보다는 학술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수업개선 방법을 찾아내고 꾸준히 실천한 실적을 중심으로 1차 도 대회를 거쳐 도 1등급 입상자만 전국 대회에 출전한다. 전국대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와 수업 동영상 자료를 심사하여 전국 1등급 및 입상 예정자를 선정하고, 보고서를 홈페이지(/training/contest)에 탑재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검증받은 후 최종적으로 입상자를 발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실수업개선을 위하여 첫째, 'edu-Study 동아리'를 자생적으로 조직·운영하여 교사 스스로 수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교과수업 전문가 공모전'을 통해 수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으며, 셋째 '수업명인제' 운영으로 선행 연구자가 동료 연구자의 수업력 향상을 위해 컨설팅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쳤다.



평창에서 이룬 금메달의 꿈

구미중학교(교장 이승환) 2학년 이진영(지적장애3급) 학생이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며 경북 교육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진영 학생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하여 1000m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777m 은메달, 500m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진영 학생은 경북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줄넘기부문에 참가, 2012년 전국체전 성화 봉송 주자 참가 등 다방면에 재능을 보이고 있다.

경북 과학교육을 빛낸 대통령과학장학생

경산과학고등학교(교장 박상오) 졸업생 이정환·양지석 학생과 대동고등학교(교장 김현호) 졸업생 권기범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재단에서 선정하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이정환 군은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으며 2011년 젊은 화학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과학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선보였다.

양지석 군은 포항공과대학교에 진학했으며 한국물리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제5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과학분야에서 우수한 학술 활동을 하였다.

권기범 군은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진학했으며 서울대학교 주최 제1회 빛물경진대회 금상 수상, 경상북도 과학영재교육원 수료 등 과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이들에게는 4년간의 대학등록금과 학기당 200만원의 학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정환 학생



양지석 학생



권기범 학생



하늘과 땅을 울린 아름다운 효심

금성고등학교(교장 김창섭) 2학년 김도형 군이 제37회 삼성효행상 청소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 군은 홀로 되신 어머니를 대신해 농사일과 소 키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등 효심이 깊을 뿐 아니라 평소 맡은 일에 충실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애들이! 사랑한day~



처음 만난 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망울과 입가에 연신 번지는 미소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3월 한 달간은 카리스마 있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소위 '잡아야한다' 던 선배교사들의 조언이 무색하게도 방긋웃는 아이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웃음이라는 반창고 밑에 아이들의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의 상처는 예상외로 깊이 패어있었다. 슬픔, 분노, 괴로움, 서러움, 우울함, 외로움. 천진난만하고 웃을 일 밖에 없을 것 같던 아이들의 맑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과의 일 대 일 상담을 통해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여 억눌려있는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이때껏 받은 상처로 인해 슬퍼하는 아이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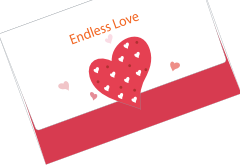
아이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보듬어줘야 되는 것인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올 한 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때로는 부모님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때로는 친누나·친인니처럼 든든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친근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학교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깊고 붉은 상처에 새 살이 돌아나듯이 함께한 1년의 학교생활 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싶다.

글, 이다혜 선생님 / 안동영기초등학교





선생님!

당신이 있어
행복해 YOU~

윤병찬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제자 은서입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졸업을 합니다. 초등학교를 떠나려고 하니 고마우신 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6학년 때 담임이신 선생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6학년 때 선생님을 만난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꿈 아시죠?

처음엔 막연한 호기심으로 가수의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즐거워요.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꿈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꿈을 이루기 힘들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한다고 하셔서 이제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댄스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노래 실력도 부족한 것 같아서 부모님과 의논해서 보컬 학원도 다니고 기타도 배우려고 합니다. 가수가 되기 위한 노래, 댄스, 기타! 3개 다 시도해 보려구요. 그리고 6학년 때 함께 만들었던 진로 블로그도 계속 꾸며서 제 꿈을 아름답게 완성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6학년을 되돌아보니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제가 난생 처음 평균 95점도 넘어보고! 그 날은 완전 감동이었어요.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얻었어요. 또 B1A4콘서트도 가보고……. 지금의 이 힘찬 기운으로 중학생이 되어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선생님~ 중학교 가면 많이 힘들겠지요? 그래도 미래를 위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고생해서 꿈을 꼭 이루겠습니다. 성공하면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선생님! 지난 1년 동안 제가 실망도 안겨드리고 안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한심하다 느끼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덕분에 중학교가 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찬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밤에

북삼초등학교(제75회 졸업생) 6학년 3반 16번 김은서 올림



1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 포항산불피해성금전달



2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 중동초병설유치원 입학식



3 멋진 미래를 향해
발사합니다.
- 봉화 춘양초
교내과학탐구대회



4 학생들에게는 노력에 대한
보람을 심어줍니다.
- 경일고 사제동행 산행대회

5 지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6 우리는 친환경 딸기처럼 사이좋게 지냅니다.

- 안동 영가초병설유치원



7 가정과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 경북인터넷고 사제간 가족 맺기





제94주년 3·1절을 기리는 태극기가 상가마다 게양돼 있는 상주 왕산골목상가. 이는 1992년부터 해마다 볼 수 있는 모습이다.

“3·1절 태극기 의미 다시 되새기길”

학생 리포터

제94주년 3·1절을 맞아 상주의 몇몇 아파트와 골목길의 태극기 게양 실태 취재에 나섰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왔으며 국가의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늘 국민과 함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백 가구의 아파트 게양대에는 한, 두 집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었고, 대부분 골목길에서는 태극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3·1절 기념식이 열리는 식당과 주변 도로변에만 태극기 게양되었을 뿐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와 주택가는 3·1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었다.

오전 9시30분에 만나 2시간가량 발품을

팔며 다니다가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한 상가 골목에 한집도 빠짐없이 태극기가 게양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상주 왕산골목상가였다.

우리는 분식집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1992년 최길연 통장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

국경일 국기 게양된 곳 찾아보기 힘들어 모범사례 '상주 왕산골목상가' 숭선수범

었다고 했다.

우리를 만난 왕산골목상가 최길연 회장(69)은 “국경일 태극기를 심천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태극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며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상가에 대한 홍보도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



우수완



양수빈



김우림

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직접 태극기 게양 실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태극기에 대해서 무관심 하였는지를 알게 되었고 국경일 태극기게양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겠다고 다짐해 보았다.

공휴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지만 3·1절과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글·사진=경북 학생기자단 상주 함창고 우수완(2), 양수빈(3), 김우림(2)

체육힐링캠프를 통해 감동(자신감, 협동) 바이러스 전하기

김천부곡초등학교 교사 심 규 영

“체육 시간에 뭐해요?, 축구해요!” 라고 한 학생이 포문을 열자 많은 남학생들이 “축구!, 축구!” 라고 외친다. 이에 질세라 여학생들은 “피구!, 피구!” 라고 맞대응 한다.

“자, 수업 시작해야지!” 라고 타이르자 목소리 큰 학생 한 명이 “그냥 체육 시간에 놀아요!” 라고 맞대응 한다.

체육을 축구, 피구 놀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체육 시간만 되면 아프다는 학생 수동적인 모습의 여학생……. 기능이 우수한 학생 중심의 수업…….

이런 고민거리를 풀어내기 위해 체육과목에 '힐링캠프' 라는 처방전을 내렸다. 체육힐링캠프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업 재구성으로 학생 주도적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한 활동으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며, 열린 공간·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감동(자신감, 협동)을 퍼트리는 몸과 마음의 치유 활동을 말한다.

먼저 체육힐링캠프' 꾸러미를 꾸리기 위해 체육 교육과정을 살펴 신체 활동의 가치를 탐색하고, 흥미·재미·의미 넘치는 모둠 활동으로 수업의 맛을 더하였으며, 발달 단계별 맞춤형 체육교구를 적용하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 수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체육힐링캠프'의 수업은 자신감, 협동력, 선의의 경쟁, 도전 정신 등과 같은 신체활동의 가치를 찾아 힐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순발력, 민첩성, 협응성과 같은 건강 체력을 향



상시키고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호신술도 배우게 된다. 또한 재구성한 배구형, 배드민턴형, 족구형 게임과 뉴스포츠 게임을 통해 감동(자신감, 협동)의 바이러스를 전하게 된다.

체육힐링캠프'는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과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여하며 그 진가를 발휘한다.

“옛날에는 체육시간에

실수할까봐 내가 잘못해서 우리 팀이 질까봐 걱정돼서 잘하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자신감을 가져야 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학생

“예전 같았으면 지거나 못하면 야유를 보내고 화를 많이 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격려하고 이긴 팀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마음이 생겼다.” 라는 학생

“내가 비겁하게 승리만 쫓는다면 다른 아이들도 나와 같이 비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학생

학생들이 '체육힐링캠프'를 어떻게 맛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체육시간에 임하는 학생들의 눈빛 태도를 보면 학생들에게 감동(자신감, 협동)의 바이러스가 전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체육힐링캠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체 활동에 대한 가치의 내면화가 외현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고 넘어져도 상처가 나지 않는 모래밭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가슴에 새기고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사랑으로
열정으로
사랑으로

아이들과 첫 대면하던 날
쿵닥쿵닥 뛰는 가슴에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던
스무 살 새내기교사의 교육 열정

때때로 밀려오는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별빛보다 초롱초롱한
고 눈들이 예뻐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른 채
보람 하나로 버텨온
교육 외길

사랑으로 열정으로
지켜온 오직 한 길
교단 삼십오 년

당신의 올곧은 외침으로
골짜기마다 심어놓은 어린 새싹
거목 되고 숲을 이루니

세상을 흔드는 일꾼 되어
굽이굽이
감사의 노래가 메아리친다.

이 길은
보람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며
감사의 길이어라

김원순 선생님께서는 남다른 교육 열정과 열린교육의 선두주자로 35년 경북교육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첫 발령지에서 다짐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35년을 묵묵히 교단을 지켜오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선배님을 감히 경북교육의 알곡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에서 (2013년 2월 19일 박윤희 님의 글)

‘감동’ 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선생님

오늘도 겨울한파가 잔뜩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입학 예정인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지난 중학교 배정 발표가 있던 날은 저희 가족 마음은 겨울 한파보다 더 끔찍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반에는 다들 1지망 중학교에 배정이 되었고 유일하게 제 아들 혼자만 다른 곳에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추천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아들 생애의 첫 좌절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더구나 같은 반에 저희 아들 혼자만 먼 거리 학교로 배정이 되다 보니 “왜 나만 00중학교야” 라는 아들의 반문에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날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못 이루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 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죠.

2월 1일이 개학날이었는데 수업을 마친 후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며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학교 반편성 배치고사 있던 날이라 배정된 중학교로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교실문에 부착되어 있는 명단에 아이 이름을 확인하고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아들 이름이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들 응원하러 오셨다면 저희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담임선생님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구미지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인데 일부러 찾아서 오신 거였습니다.

아들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분은 구미형곡초등학교 6학년 3반 담임을 맡고 계신 신미소 선생님입니다. 성함처럼 항상 얼굴이 미소가 번지는 분이시죠. 중학교배정추첨이라는 제도를 참신나마 원망도 했지만 저희 가족은 선생님의 배려에 다시 한 번 위로를 받고 중학교 3년은 즐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로 아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며칠 전 작은 충격은 잊었습니다. 신미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에서 (2013년 2월 7일 김정희 님의 글)

우리 주변의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을 칭찬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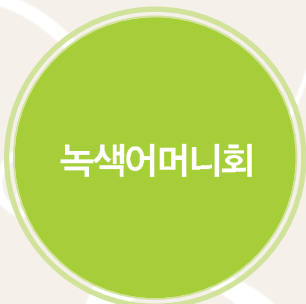
보낼 곳 : khg2661@hanmail.net

2013년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정기 협의회



2013년 2월 22일 고령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도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신년도 첫 협의회’를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손용락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을 비롯한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과 고령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엄마가 지킨다



경북 녹색어머니회(회장 고연선)는 3월 4일 오전 8시, 상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내권 5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경찰과 녹색어머니회원, 교직원 등 25명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홍보지와 홍보용품(엄마손, 메모지, 자)을 배부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꿈과 재능을 키워 행복을 주는

「명품 경북 교육」



고객불만 Zero, 고객 감동 Up

- 언제, 어디서나, 방문없이 즐거워진 민원서류 발급
 -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
 - 교육 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
- 방문과 동시 발급으로 민원 대기 시간 절약
 - 제증명 발급 사전예약(053-603-3642~3)



내 자녀 정보! 학부모님의 알 권리입니다.

-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학교 운영
 - 교육계획 등 47개 학교 주요 정보 「학교알리미」에서 확인(<http://www.schoolinfo.go.kr>)
- 자녀 성적, 학교생활 등 내자녀 정보 「학부모서비스」에서(<http://hes.gbe.kr>)





맛있는 학교 이야기!
멋있는 학교 이야기!



w . w w . g o g o g b e . k r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선생님의 보람찬 학교 이야기
학부모님께 감동주는 학교 이야기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맛쿨 멋쿨**」 검색하세요.

맛있는 학교 이야기!
멋있는 학교 이야기!
명품 경북교육 이야기

경상북도교육청 공식블로그
「**맛쿨 멋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블 러 그 ▶ <http://blog.naver.com/2mcool>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gogogbe>
- 트 위 터 ▶ http://twitter.com/go_gbe